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전교인 성경 통독 150일 운동이 이제 목표점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합니다. 이번 주 범위는 에스겔 21장부터 요엘서 1장까지입니다.
2. 금요 저녁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8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3.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찬송, 기도, 안건토의).
4. 이태한 목사는 한국방문 및 선교사 대회 참여를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5. 김광영 집사 Hospice에서 퇴원하셔서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6. 5월 정기 당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4시 10분, 사무실).
7. 이사: 김광영(장태옥)집사, 주소: 2/58 Zefiro Dr. Massey
8.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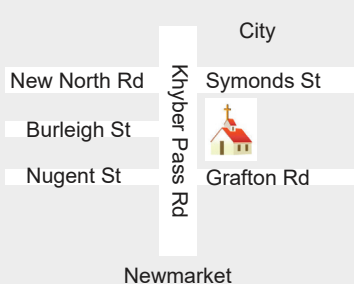
2018년 6월 3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주일 1부 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 예배	주일 PM1:00
청년 예배	주일 PM3:15
수요 예배	수요일 PM7:30
새벽 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요한복음 4장 23~24절
◎ 찬 송	다 찬양하여라 21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대 표 기 도	현석호 장로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2:1-11
찬양대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위대한 발견 박태신 목사
찬 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 도	박태신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기 도	정덕수장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2:5-11
설 교	사탄의 계책/ 이성철목사
찬 송	오늘 나는
주 기 도	다같이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 김유라 자매

6월 교회 사역

6월 3일(주일): 저녁기도회
 6월 24일(주일): 성찬주일
 6월 27일(수요일): 선교회 주관예배
 (제2 여성교회)

6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차영철 집사
 다음 주일: 김철재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김규연 형제
 6월 13일 수요일: 정진택 집사
 6월 13일 애찬: 최은수 집사
 6월 17일 주일: 박덕철 장로
 6월 17일 청년부: 채다운 자매

6월 예배 봉사자

예 배 안 내: 김은우/박병민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 차 안 내: 김교섭/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금주의 기도제목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인본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성도 간의 이해와 섬김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김광영, 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성경통독 후기입니다.

보니 엠이라는 보컬그룹이 부른 ‘Rivers of Babylon’ 이라는 곡이 1970년대말과 80년대에 큰 히트를 쳤다. 흑인 4인조의 짙은 음색과 경쾌한 리듬으로 거의 목화밭에 버금갈 정도의 인기를 누렸었다. 라디오는 물론 고고장에서도 이 곡을 즐겨 들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곡이다. 그런데 이 곡의 가사가 바빌론 포수에 관한 것인지는 한참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시편 137편 뒷 부분의 구절들을 약간 바꾸기는 했지만 시편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그룹의 노래일텐데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들이 상당히 음란마귀의 유혹을 부채질하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곡의 성경적인 가사는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아이돌이라는 명칭 자체도 싫다.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는 대중은 그것이 무슨 선망의 대상일 것처럼 생각할 텐데 우상은 우상이고 헛된 욕망과 바램이라면 그런 이름들이 난무하는 것은 싫다. 우상은 기본적으로 허수아비라는 뜻이 아닌가? 말씀 중에 우상에 대한 경계가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던가?

“우리가 바빌론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데 우리를 잡아온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 한다. 우리가 어찌 원수의 땅에서 여호와와의 노래를 부르랴. 내가 예루살렘을 잊거나 다른 것을 더 섬긴다면 내 모든 재능도 사라지고 허는 천장에 붙을지어다.” 시편 137편의 끝 부분은 너무나 과격하여 옮기기조차 망설여진다. “바빌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는 복이 있을지니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치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깊은 감상과 더불어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그런 내용이다. 슬한 패역과 불순종,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이 137편에서 보듯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민족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행실은 비록 온유 할지라도 우리의 속 마음은 항상 악과의 싸움에 단호하고 물러섬이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